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 정상 임석 가운데 MOU 체결로 한-베트남 경제협력 이행 기반 마련 -
- 재생에너지 협력, 원전인력 양성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11일(월) 또 램(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8.11. 오전)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베트남은 제8차 전력개발계획수정안(25.4)을 통해 신규원전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35년까지 원전 4기 가동 및 재생에너지 확대(용량 비중 '23년 55%→'30년 62%) 목표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 - 베트남 산업장관회의(서울 롯데호텔)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5년간(2025~29)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도입과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 베트남 핵심광물('25, USGS 매장량 기준) : 희토류(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흑연(세계 7위), 주석(세계 9위) 등

** (ODA) 「베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사업 ROD」(KIAT-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25~'29(166억원)) : 건축지원 및 기자재 구축, 핵심광물 인력양성, 희토류, 니켈 고부가가치화 기술협력, 기업 협의체 운영, 투자 상담회 등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4-203-5714)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국현 (044-203-5360)
		담당자	주무관	송경섭 (044-203-5367)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우지식 (044-203-5283)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담당자	사무관	김윤주 (044-203-5681)



1. 재생에너지 협력 MOU

- (주체)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 (내용)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계 ESS 분야 협력
 - ① 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인력 교류 ② 국내기업의 현지 수주 프로젝트 원활한 진행 등 양국 기업 간 교역·투자 프로젝트 촉진 협력 ③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해외 공동 진출 등 기업 간 신규사업 발굴·협력 등 지원 ④ 재생에너지 진흥·연구 기관 간의 정기적인 협력·교류
- (이행) 상호 협의 후 정기적 고위급 및 실무 대화체 개최
- (효과) 양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향후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기반 조성

2.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

- (주체) (韓) 한국전력 사장 - (베) 베트남에너지산업공사(PVN)* 회장
* 베트남 닌투언 #2 원전사업 발주사
- (내용) ① 인력양성 경험 공유, ② 베트남 원자력 인력실태 진단, ③ 원자력 인력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 * 한국형 원전에 기반한 산업, 연구, 규제, 건설 등 다양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지원
 - *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및 실무방문협력, 원전분야 교육 및 훈련정보 교환
- (효과) 한국형 노형 이해도를 제고하여 우호적인 수주환경 조성, 원전 인력양성으로 원전건설 협력 기반 강화

3.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ROD(협의의사록*)

* 양국간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에 대한 ROD(Record of Discussion)

- **(주체)** (韓) 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 (베) 국립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VIMLUKI) 원장

*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교환
· 한-베트남 산업부장관 회의 계기

- **(내용)** 베트남 內 핵심광물* 선광·제련 장비 도입 및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베트남 자원 부가가치 제고 및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지원

* 국립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VIMLUKI) 부지 內 센터 조성

* 베트남 핵심광물('25, USGS 매장량 기준) : 희토류(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흑연(세계 7위), 주석(세계 9위) 등

- **(효과)**

- (한 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우리기업 투자 촉진
- (베트남) 부존 원료광물의 고부가가치화(선광·제련 등) 기술역량 제고